

제 188 호

교황 주일

1976. 6. 20

숲정이

발행인	김종택
인세인	법석규
주간	조성호
편집	한상갑

편집실 : 전주시 서노송동 560의 6
전주교구청 내 (전화 35098)

● 강론 ●

당신의 믿음

당신을 살렸소

김용태 신부

오늘 우리는 야이로가 열 두해 동안 하혈증으로 고생하던 행위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를 생각해 보아야 하겠다. 신앙심이 있었기에 예수님을 찾아뵙고 간청하였으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었다.

'내 친구를 믿는다'는 말은 친구의 능력과 선의와 성실성을 인정하여 그를 신뢰한다는 뜻이고 '교리를 믿는다'는 말은 그 교리의 내용이 내게는 자명한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내게 제시하는 어떤 권위자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며 그것을 있는 그대로 내게 전해주리라는 사실을 인정하여 교리를 받아드린다는 뜻이다. 이 두가지 점을 포괄한것이 신앙이 아닐 수 없다.

하느님께 대한 신뢰만으로는 '그리스도교를 믿는다' 할 수 없고 하느님께 철두철미하게 신뢰하지 않는 한 그리스도교 교리가 믿어지지 않는 까닭이다.

믿음의 과정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 알게될 때 되는 과정과 비슷하다. 타인을 이해할 때 이성이나 논리만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미약하다. 두 사람이 서로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그들이 완전히 상대방을 믿고 신뢰를 갖는때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인간의 우정이나 사랑의 과정에 있어서 믿음과 신뢰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신뢰이면서 사랑이신 하느님을 이해함에 있어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으리라. 우리가 하느님을 알고 믿게 되는 것도 우리에게 항상 당신을 계시하시는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통해서인 것이다.

믿음은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의 의지와 이성과 지식으로 받아드릴 뿐 아니라 우리의 생활과 실천으로써 응답할 때 우리의 믿음은 성숙하고 산 믿음이 되는 것이다. 믿음은 인간의 어떤 감정이나 이성이나 지식만의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전인격적인 응답일때 참된 생활의 신앙이 있는 것이다.

신앙은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함을 뜻하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안에 우리 전 존재를 위탁하는 것이다. 신앙은 하느님의 은혜에 대해 우리가 끼어 결손되어 동의하고 응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앙은 노력없이 얻어지는 것이아니라,

우리에게 하느님이 당신을 계시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이심으로 받아들일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하느님의 계시도 우리에게 한낱 가치없는 것 밖에는 되지 못할 것이다.

자신을 굴복시키고 자신으로부터 탈피를 성취할때 산 신앙이 되며, 교만과 자아에 대한 집착과 세상의 헛된 것에 지나친 애착과 자신을 폐쇄하는 것들은 신앙을 어렵게 하는 것이다.

항상 기도하는 생활로 스스로 하느님 앞에 굴복시키는 겸손한 태도를 갖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느님의 뜻에 따라 성실한 태도로 사랑의 대화, 거짓 없는 대화를 나누며 하느님의 참뜻이 무엇인가를 알아내는데 노력하고 자신을 깊이 알아야 되겠다. <이리 창인동 천주교회>

이 주일의 미사 해설

* 연중 제 13주일 * (기도서 p. 379)

형제 여러분, 인류에게는 영원한 수수께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인간은 왜 고통을 당하며 죽어야 하는가? 고통과 죽음은 어디서 왔는가? 신하신 창조주 하느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하는 물음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는 계시의 빛으로 이 신비를 풀어 줍니다. 그리고 고통과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체를 영하고서 고통과 죽음을 초탈하는 은혜를 받으시라.

□제1독서 (지서 1장 13-15절, 2장 23-25절)

인간은 본래 하느님의 모습을 닮아 불사불멸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죽음은 하느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죄지음으로써 죽음을 자초한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반드시 극복되리라는 가르침이 지서에 나옵니다.

□제2독서 (고린토후 8장 7-9, 13-15절 p. 415)

고린토 신자들에게서 의연금을 거두면서 사도 바오로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상기시킵니다. 하늘나라의 부모충만하신 주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가난에서 건지시고자, 스스로 가난한 인간이 되신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복음 (마르코 5장 21-24, 35-43절 p. 86)

주님은 당신이 부활하시고, 생명이요, 당신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예수의 기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예수를 생명의 주님으로 믿는 신앙 덕분입니다. 인류를 지배하던 죽음의 세력이 거시부터 꺾인 것입니다.

□영성체 후 묵상

우리는 신앙을 가졌기에 죽음의 신비를 정면으로 마주 대할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 죽음은 죄의 벌로 나타났습니다. 죄인의 죽음은 죄값이요, 심판이며 멸망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음을 죽는 그리스도의 죽음은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에 우리도 죽는 것입니다. 그분이 육체의 속박을 벗어나 온 우주를 포용하셨기에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죽음을 거쳐 영광으로 나아가셨기에 우리도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죽음을 극복하시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죽은이들도 주님의 말씀이 들리면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셨습니다.

숲정이 산책

뒷 빠진 사람들!
저렇게 도와 주었건만!



3.1 사건 공판 방청기 (5)

김 영 신 신부

6회 공판 기간에 1~3차는 방청권이 없어 기관원들의 삼엄한 경계와 제지로 대법정 후문에서만 웅성거리다 돌아왔다. 이번은 모처럼 방청권을 얻었다. 자유롭게 방청할 수 없던 법정이라 그런지 경계와 조사를 받아서인지 도대체 마음이 굳어져 풀리지 않는다. 누가 옆에서 시비만 하면 따지고 싶다. 그러나 참고 법정에 앉았다.

오랜만에 만난 동료사제 20여명과 수녀님들과 같은 자리에 앉아 있게 되니 굳어졌던 마음이 펴 풀렸다. 배마침 호호인들이 양쪽에 따라오지만 구속사제, 목사들의 창백한 얼굴로 미소를 짓는 모습을 보니 오히려 자신이 위로받았고, 진실한 격려와 찬사를 말로는 표현 못하고 손짓으로만 했다.

몇 분후 위엄을 갖춘 검사들이 활보로 걸어나왔고, 10시 20분에 재판이 시작되었다. 재판장이 법정모독을 하지 말라는 경고와 아울러 공판조서가 늦어 죄송하다는 말이 있자 변호인의 재판조서 열람결과 재판절차와 변호인단이 요구한 내용이 적어도 구체적으로 변경, 삽입 시정되어야 한다며 이의 신청을 1회공판부터 5회까지 일일이 지적하며, 노고에 감사 표시를 하며 마쳤다.

변호인의 김대중씨 반대신문이 공소장 순서 및 내용에 따라 시작되었다. 김대중씨는 간단명료하고 체계적으로 실례를 들어가며 장장 오전 오후 약 4시간 동안 자신의 소신과 이번 사건을 숨김 없이 말했는데 다 옮길 수는 없고 대략 다음과 같다.

재판장이 유보시켰고 아직 비공개된 민주 구국 선언이 밝혀지면 알겠지만 사실 국론은 중요하므로 국가안보 국민총화는 이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몽고메리가 말한 것 같이 국민은 자기 손에 쥘 자유를 얻어야만 공산당과 대치할 수 있으며 군인이 일선에서 적과 싸울 때에 후방에 있는 국민이 자유와 평화를 가지며 이에 더 힘을 내서 싸우는 것과 같이 국민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참여의식이 강해지며 국민총화, 국가안보가 이룩된다. 오히려 국민을 억압하면 국가안보, 총화가 약해지므로 자유를 억압하고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를 저해하는 정책은 국민으로써 시정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3·1운동정신과 4·19정신을 길이 후손들에게 전해줄 때 한민국에서 완전한 민주주의는 못물려준다해도 선결과를 선배들이 닦아 놓은 만큼이라도 물려주고져 했는데 육고를 치러야만 한다고 개탄했다. 자기의 소신은 변함없고 3선개헌 당시와 유신헌법 개정 때도 최선을 다했으며 이번에도 자신은 강하게 민주구국선언문을 작성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문익환 목사님의 요청으로 현행 법적으로 저촉되지 않도록 수정하겠다고 양해를 얻어 그렇게 작성했는데 그것 까지도 문제로 삼고 정부전복, 민중봉기라고 하니 대화할 수 없는 현실이라 개탄했다. 하물며 애국 총정에서 현실의 문제점인 민주주의의 실현, 경제문제, 조국통일 방안을 정부에서 책임을 지고 시정해 달라는 내용을 오히려 왜곡하고 피해의식에서인지 마치 길거리에 칼을 들고 가는 사람을 살인미수범이라 하듯 국가전복, 민중봉기를 획책했다고 하는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했다. 더우기 양심이 보장돼야 하고 고통받고 버림받은 이들을 위하여 사는 그리스도의 사명을 마태복음 25장의 성경말씀을 인용하며 종교문제까지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반대신문 도중에 열을 올리는 검사를 진정시켜 가며,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시라는 재판장의 요청에 자신은 공소장과 관계없는 말은 하나도 하지 않았으며, 연수회가 아닌 변호인의 반대신문이 오후 4시 30분에 끝났다.

아침 일찍부터 피고인 목사 가족들이 가정예배를 보고 재판소에 오고자 했지만 제지당하여 오전엔 못왔다가 방청한 5, 6명의 목사 부인들의 "우리 승리 하리라"는 노래에 맞춰 피고인들은 하나 둘 호송차에 올라 어디론지 가버렸다. 무엇 때문일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주여! 이 땅에 참다운 진리와 정의가 실현되도록 저들에게 용기를 주소서.

(천주교 전주 교구청 관리국장)

여성 여러분에게 멋을 팝니다

세느의상실

최춘자(로사리아)

전주시 중앙동 전주극장 동편입구

2-6219

☆교형 여러분의 집☆

한국(流)운수운들

부활상회

전주시 전동 3가 26~17번지
<매곡교 사거리> 전화 ② 2143
전주 연락서 주립배(실배들)
◎ 언제나 찾아주세요.

신자들의 건강 센터

성심당한약방

이상범(필노리아노)

육교길 구 북부배차장 옆
전화 ③ 4544

교리교실 ④

루 가 복 음 서

나 공 열

루가 복음서를 대할 때 우리는 다른 복음서보다 친근감과 따뜻한 위로를 맞는다. 그 이유는 저자 루가가 우리와 같은 처지인 이교도 지방인 시리아의 안티오키아 태생으로 예수의 직계자는 아니었으나 오랫동안 포교사로 활약하다가 사도 바울로를 만나 그의 충실한 협력자로 일하면서 그의 영향을 받은 겹에 있다. 또한 그 자신이 서문(1장 1-4절)에서 의도를 밝힌 바와 같이 마르코와 마테오가 사용했던 예수의 어록집(Q)과 자신이 수집한 자료들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위해 새롭게도 아름다운 복음서를 꾸몄기 때문이다.

루가는 마르코의 순서를 따르고 있지만 독자가 이방인들임을 감안하여 유대적인 용어들(예: 랍비)을 피하고, 유대인들의 관습이나 율법규정들을 열거하거나 구약을 자주 인용하지도 않는다. 반면에 이방인들과 버림받고 멸시당하는 사람들을 소재로하는 아름다운 비유들(예: 착한 사마리아인)을 많이 전해준다.

루가복음서는: ① **자비와 동서의 복음서**이다. 루가가 묘사하는 예수는 죄인들을 용서하며 그들의 친구를 떠고져 오시고 「잃어버린 것」(15장: 양, 은전, 아들)을 찾고 구하기 위해 오신 분이다(19장 10절).

② **가난한 이들의 복음서**이기도 하다. 예수는 가난한 이들을 도와주는 분이다. 마테오(5장 1-12절)에 비해 루가(6장 20-25절)는 가난한 사람들이 행복하며 부자들은 불행하다고 네 번이나 반복하고 있으며 다른 곳(12장 13-21절, 16장 19-21절)에서도 가난한 이들의 행복을 말한다.

③ **여인의 복음서**라고도 할 수 있다. 루가는 여인들에 관해서 관심이 많아 그 복음이 많은 여인들을 등장시키며(1장 5-60절, 2장 36-38절, 7장 11-17절, 7장 36-50절, 8장 2-3절, 10장 38-42절, 11장 27절, 15장 8-10절, 18장 1-8절, 23장 27-31절) 사랑과 존경을 가지고 마리아를 예수의 어머니로 소개한다.

④ **절대적 포기를 강조한 복음서**이기도 하다. 마테오(4장 18-22절)나 마르코(1장 16-20절)는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그물과 아버지를 버리라고 하지만 루가(15장 11절)는 「모든 것」을 버리라고 한다. 「아내」까지 버리고(14장 26절)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9장 62절)고 강조한 사람은 루가뿐이다.

⑤ **기도의 복음서**이다. 루가는 중요한 일을 하기에 앞서 항상 기도하는 예수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3장 21, 6장 12, 9장 18-28, 11장 1, 22장 41절). 예수는 기도하는 스승으로서 모범을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강조한다.

끝으로 이 복음서의 저자문제, 저술 장소와 시기를 살펴보자. 이 복음서의 저자가 루카라는 것은 교부 이레네오 이래 교회의 전통으로 내려왔고 이를 번복할만한 반증은 아직 없다. 또한 전통에 의하면 루가는 바울로가 죽은 후에 그리이스의 남부 아카이아에서 자기 복음서를 저술하였다고 한다. 저술연대는 바울로가 순교할 당시(67년경)에는 다른 복음서가 있었다는 사실과, 루가 복음서의 내용(19장 43, 21장 20-24절)으로부터 예루살렘 멸망(70년) 이후가 된다. 학자들은 이 연대를 75~80년으로 추정하고 있다.

요심이(152) 



언제나 애용해 주십시오

입금님 찾집

전주 전신전화국 앞
전화 ⑤ 5 0 1 3
김원준(야고버)

여자보세공 모집

1. 자격: 17세 이상
2. 모집인원: ○ ○ 명
※수시 모집함
3. 연락처: 전화 ⑧8466
전주시 전통성당 골목
김영환 (아오스딩)

김용길양복점

교우 여러분과 결혼 예물은
특별 염가 제공
정병준(정아우구스티노)
전주 중앙동 조흥은행 앞
전화 ② 3 5 1 9

교우 여러분들을 특별 우대함

농약, 씨앗, 농기구

고농농약사

전주시 전동 1가 303의 7
점포 전화 ②4740번
박태수(벨라도)

교우들의 선물 센타
전자, 새살림, 기념품, 완구

아세아 종합 스토아



강영욱(로모알드)
남문 신탁은행 앞
전화 ④4007, ②7007

①교우 여러분께 특별 봉사함
새롭고 저렴한 연탄보일러 온돌 안내

한국은수산업사

전남북 총판, 기술보급소

군산지점 7211
정읍지점 2157
부안지점 736

이리시 인화동2가65-16 (전화 4940)
한 등 압 (모이세)
※각 지방 대리점 구함

□개원안내□

★언제나 찾아주세요★

수석(水石)치과의원

전주시 중앙동 3가 42~1
(박 소아과) 앞

원장 김 현(아오스딩)
전화 ② 1665

제 4 지구 각 본당 소식

공지사항

1. 그리스도 공동체 목상회-가톨릭센터에서 (7월 7일 오후 4시~7월 10일 오후 2시까지) 회비-4,000원,
 - ① 보드나은 교구, 보드나은 세계 발전을 위해 실시하는 이 목상회에 많이 참석 합시다.
2. 교구청에서 취급하던 제병을 7월 1일부터 성체회 수녀원에서 취급 편이상 장소가 바뀌었으니 필요하실때는 아래 주소로 연락하시면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전주주 중노송동 361 성체회 수녀원> 전화 ③ 3231
3. 중·고등 연합회 지구장 회의-7월 4일(일) 오후 1시 ①안전-지역대회, ②장소-가톨릭센터 학생 회의실
4. 문정현 신부님을 위한 헌금 누계 845,456원 감사합니다.
 - 상관 신리 안운기 (2천원), 중앙 천주교회(43,395원)

(중망) 전화 ③3651 주임 신부 이대권 권섭환
 ③3874 수석보좌 신부 김이상
 사도회장 이상용

1. 방저거 삼회 월례회: 7월 4일(일) 오후 2시반
 2. 주임 신부님 영명 축일(29일): 오늘 공식 미사후 축하식
 3. 젊은이를 위한 대화의 광장: 7월 3일(토) 오후 8시, 강당
 4. 중·고등 학생 백일장: 7월 4일(일) 오후 2시, 송광사
 5. 엠마누엘 공개 셀: 7월 3일(토) 오후 3시
 6. 첫 영성체 준비 교리: 7월 12일(월) 오후 5시부터
- ◎ 각 교우집에서는 빠짐없는 등록 바랍니다.

(노송동) 주임 신부 공아영 영현
 전화 ③7032 사도 회장 조해형

1. ★ 오늘은 교황주일...헌금은 교구청을 거쳐서 13년 동안 우리 성 교회를 맡으신 교황 바오로 6세께 보내드립니다.
2. 재속 형제회 월례회: 공식 미사후 ◎ 모든 형제 자매님은 빠짐없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3. 6월 29일(화) 성 바오로, 베드루 대축일: 합동 생미사가 있으니 베드루, 바오로의 본명을 가지신 분은 29일 저녁미사 전까지 본당 신부님께 신청바랍니다.
4. 다음 금요일은 첫금요일이며 저녁 8시에 특별 미사가 있습니다. ◎ 10시 미사도 있음.
5. 임시 복사직 사도회에서 결정: 박일천(요한)
6. 다음 첫목요일(성시간 오후 8시) 강론: 오기순 신부님 ◎ 많은 참석 바랍니다.

(덕진) 전화 ③2182 주임 신부 박종근 김용환
 사도 회장 김용환

1. 학생과 젊은이 모내기 봉사: 27(일) 공식 미사후, 집결장소-본당
2. 부녀회 월례회: 공식 미사 후
3. 오늘은 교황 주일-특별 헌금이 있습니다.
4. 중·고등 학생 체육대회: 무기 연기
5. 신우협동조합 임원회: 다음주 공식 미사후

(복자) 전화 ③5238 주임 신부 김종길 조성호
 사도 회장 조성호

1. 반 회합: 30일(수) 6반 유요셉씨매 흥마리아 반장(중앙동), 29일(화) 7반 이마리아씨매 정마리매 반장(교사 1,2가), 7월 1일(목) 9반 김모리카씨매 조마리아 반장(완산동)
2. 각 신심단체(L.M, 부녀회, 삼회, 학생회, 주일 학교, 기타) 에서는 모든 행사를 사도회를 거쳐 본당 신부님의 재가로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 재가 없이 행하는 금합니다.
3. 사도회 월례회: 다음주 공식 미사 후 ◎ 각 임원, 반장님께서는 빠짐없는 참석 바랍니다.
4. 사무실 선포기 1대 기증: 흥마리아 자매 ◎ 감사합니다.
5. 우리 다함께 협조 합시다. 무엇을?...
 - ※ 본당에서 성가대를 조직 합니다. 젊은이들은 뜨거운 관심을 보입니다.

(서학동) 전화 ③2276 주임 신부 오현택 박장춘
 사도 회장 박장춘

1. 사도회 월례회: 다음주 공식 미사후
2. 교무금을 완납하여 본당운영 도웁시다.
3. 반 회합이 끝난 반원께서는 반드시 사무실에 다녀가시기 바랍니다.
4. 우리 성당 개수는 우리 힘으로!
 개수공사 헌금 143,500원 손숙자(3천원), 전선형(2천원), 손홍열, 조왕채, 박옥신, 권중호, 임한국, 이성준, 중앙성당 익명(각 1천원)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환철 문규현
 보좌 신부 양윤모
 사도 회장 양윤모

1. 글라라 형제회: 오늘 오후 1시반
2. 공동체 목상회 오늘 오후 5시까지 진행중
3. 예수 성심 3일 기도회: 월, 화, 수 저녁 미사후 (성체 강복)
4. 예비자 교리: 남자와 미혼 남·녀(수요일 밤), 여자전체 (주일 10시 미사후)
5. 보좌신부님 영명축일 (29일) 많은 기도 바랍니다.
6. 견진 사진은 성모병원 앞 푸른사집판에서 찾으시오.

* 각 본당의 금주간 소식과 지난주일 봉헌금 *

지구	본당	소식	봉헌금	지구	본당	소식	봉헌금
제 1 지구	고진수신정	창세예인음악회	4,950원	제 3 지구	주현동	대의원 회	50,310원
		공소 방문 (동해원) 쿠리아 회	25,670원			제 4 지구	중노송동
제 2 지구	대운월명	청년회 애령회	19,100원	제 4 지구	중노송동	주임 신부님 영명 축하식	74,195원
		유아세례 쿠리아 회, 어린이 영세식	3,510원			재속 형제회 월례회	30,775원
제 3 지구	고금여삼	까리따스 월례회	56,345원	제 5·6 지구	무장진남순임	학생과 젊은이 모내기 봉사	17,230원
		이 북동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왕 모후쿠리아	26,290원 15,870원 15,665원			다음주 사도회 월례회	25,380원
제 3 지구	고금여삼	사도회 월례회	3,190원	제 5·6 지구	무장진남순임	다음주 사도회 월례회	16,462원
		성당 대청소	18,790원			글라라 형제회	83,570원
제 3 지구	고금여삼	주일 학교 시작 예고	12,815원	제 5·6 지구	무장진남순임	청년회 월례회, 어린이 성세식	12,150원
						구역장 회	4,400원
						다음주 학생회 모임	8,040원
						성모회 월례회	15,985원
						주일 학교(주일 오전 9시) 시작	5,600원